

07
11월
08

2008 광주비엔날레 결산 ④ 과제

해외 인맥 챙기고 관광상품 만들라

광주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국제 미술 행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 인맥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싱가포르, 상하이 등 국내외 비엔날레가 200여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관람객을 유치해야만 국제 대회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빼어난 관광지를 앞세운 상하이와의 경쟁을 위해서 비엔날레와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2008 광주비엔날레의 개막식(9월5일)에는 그 어느 대회보다 많은 해외 언론·미술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처럼 세계 미술계의 눈이 광주로 쏠린 것은 스타 감독의 얼굴을 보고 찾아온 '오쿠이 효과'가 가장 컸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폐막과 동시에 오쿠이 엔취위 예술총감독과 참여 큐레이터들이 철수함에 따라 자칫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의 해외 인맥 관계가 끊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 재단은 아시아지역 경쟁 미술 행사인 상하이·싱가포르비엔날레, 요코하마비엔날레의 총관람객 수와 예산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최근에는 취합할 수 없었다.

이는 담당 직원의 잦은 퇴사와 보직 이동, 주먹구구식 해외 인맥 관리 탓이다. 지난 2002년 이후 재단에 공개 채용된 직원 15명 중 10명이 일약한 근무 환경 등을 이유로 그만뒀다. 이들이 매 회를 치르면서 쌓은 '노하우와 인맥'이라는 재단의 무형의 자산이 소멸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이번 비엔날레 기간 동안 광주에서 열거로 했던 아시아권 5개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회의도 재단의 부실한 해외 인맥관리로 무산됐다. 실무자급에서 협의만 했을 뿐 정작 참석해야 할 해외 인사들과의 '화란인'이 가동되지 않아 폐막식 참석(시드니), 개막 준비(상하이), 지병(요코하마) 등의 이유로 각각 이사장들이 광주 방문에 난색을 표한 것이다.

이 때문에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 확립과 전시 노하우, 해외 인맥 구축 등을 위해서는 재단



광주비엔날레가 국제 미술 행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전문화와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이번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을 찾은 해외 미술전문가들의 모습.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오쿠이 효과’ 특특...체계적 관리 필요 5·18 국립묘지·무등산 등 명소 활용

의 전문화와 함께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일손이 부족하면 광주시청 공무원으로 대체를 하는 '뺨방식 처방'으로 한계가 있다. 우수 개선을 통한 전문 인력 키우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아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식인 재단의 해외 관람객 유치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외국인 관람객 수는 1만2천788명으로 전체 관람객(35만6천여명)의 3.6%이다. 이는 재단이 당초 계획했던 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외국인 관람객 비율 5%는 세계 최대

의 전시 관련 국제기구인 세계전시연맹(UFI)이 국제행사로 인정해주는 기준이다.

외국인 관람객이 늘지 않는 이유는 전시 이외의 볼거리가 없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 대책이 전무한 탓이다.

스페인세비야비엔날레 이원일 감독은 "해외 유명 비엔날레는 주변의 관광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해외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다"면서 "광주상무대, 답양의 가사문학관, 5·18 국립묘지, 무등산 등이 지역 명소를 활용하는 전시 기획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늦가을 마감, 아름다운 몸짓

늦가을을 마감하는 무용 공연이 잇따라 열린다.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을 아우르는 축제보다 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호·영남 춤 페스티벌이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무용협회(회장 정혜경)가 진행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부산시립무용단의 '화중신선'이 무대에 오른다.

조선대 출신으로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을 이끌고 있는 홍기태씨가 안무한 '화중신선'은 꽃 가운데 신선으로 잡히는 해당화들 소재로 한 작품이다.

광주시립무용단은 지난 정기공연 때 무대에 올렸던 현대 발레 '레퀴엠'을 무대에 올린다. 이영애 단장이 안무한 작품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운명에 대해 그리고 있다.

지역 현대 무용가들의 끼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08 광주현대춤 페스티벌은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임지형&현대무용단이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고독, 불안 등 현대인의 갖는 감정들을 자유로운 몸짓으로 풀어낸 여섯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장미영 무용단은 '일문 2'를 무대에 올리며 박주희

오늘 호·영남 춤 페스티벌 14일 광주 현대춤 페스티벌

그랑 무용단은 참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라이프 스토리 2'를 공연한다.

또 광주현대무용단은 백난희씨의 안무로 'What Do You Say'를 선보이며 현대인의 불안과 해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박종남 비상무용단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와 김미선 무용단의 '고백'도 관객을 찾아가는

그밖에 조소희 무용단은 앞줄과 옆줄의 라인을 만들어 파트너 없이 혼자서 방향을 전환하며 동작을 여러번 반복하는 '라인댄스'를 소개한다.

/김미영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보 신춘문학회 회장 노창수씨 시집 '원효사 가는 길' 펴내

“유년시절 따뜻한 서정 가득 담아”

광주일보 신춘문학회 회장인 노창수(광주 운남고등학교 교장·시인)씨가 시집 '원효사 가는 길'(시선사)을 출간했다.

이번 시집에는 유년시절 경험을 토대로 교사로서, 아버지로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현재 자신의 삶을 노래한 70편의 시가 실려있다.

여학교의 청소시간이 눈앞에 펼쳐지는 '청소'를 비롯해 가을의 서정이 진하게 배어있는 '가을 숲이 부르는 것', 시각장애인에 대한 연민의 정이 드리워진 '고뇌의 가슴에 흐르는' 등의 시를 읽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저자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진다.

이밖에 제자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연민, 사회 현상에 대한 풍자 등 삶에 대한 고뇌가 시집에 수록된 시들 곳곳에 나타난다. 저자는 "새벽 편대를 적서 내는 유년

의 기억과 아침 눈시울에서 햇빛을 비춰 내는 서정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 시들이 독자들에게 물결처럼 흘러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씨는 목포교육대학(현 목포대학교)을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73년 '일출'이라는 시로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겨울 기억' '선 따라 줄기' '배설의 하이테크 보리 개떡' 등의 시집과 '한국 현대시의 화자 연구' 등 문학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박지택 관장 연임

제9대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에 박지택(시인) 현 관장이 연임됐다.

광주시는 11일 "광주시립미술관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통해 박지택 관장의 재선임을 결정했다"고 밝

혔다. 1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박 관장은 이번 연임으로 2010년 11월까지 관장직을 맡게됐다.

박 관장은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을 졸업한 뒤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 한국미술협회 광주시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화폭에 담은 소리·바람·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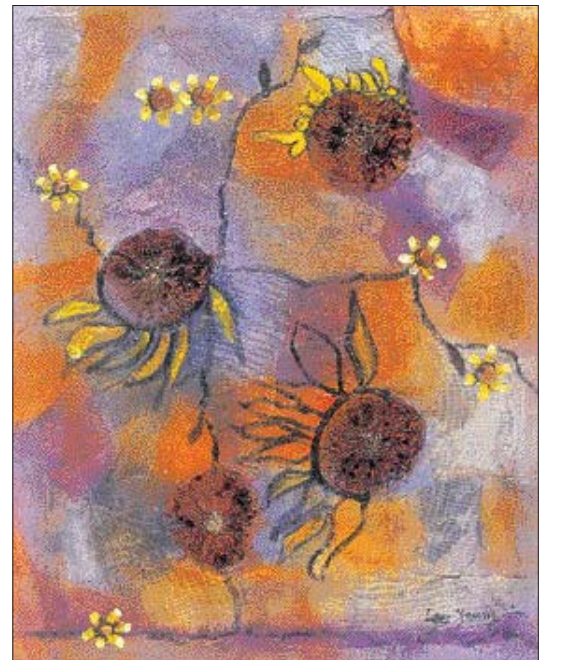
이영임씨 7번째 개인전

소리, 바람, 그리움 등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화폭에 담아내고 있는 이영임씨가 13~19일까지 광주시 동구 공동예향갤러리에서 7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씨는 이번 전시에서 황토색, 검은색 등을 듬뿍 풀어 정신의 다양한 이면을 보여주는 신작을 발표한다.

이씨는 황토색과 거친 마티에르를 통해 꾸밈없는 고향을 형상화했고, 화면을 나눈 뒤 각각 다른 색을 칠해 감정의 다양한 결을 표현했다. 대상에 따라 밝고 경쾌한 회색 톤의 밑색을 칠한 뒤 원근감과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을 대비시켜 독특한 느낌의 작품을 탄생시켰다. 또 화면 곳곳에 노란 꽃을 새겨 넣어 다소 무거운 색으로 표현된 느낌의 단조로움을 피했다. 노란 꽃은 작지만 색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관람객의 자연스러운 시선의 흐름도 이끌어냈다.

미술평론가 안호범(전 경원대 미술대학 교수)씨는 "함축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시처럼 인간 내면의 세계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색칠하고 있는 작가이다"고 평했다.

이씨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상, 국제미술대상 특상, 한국여성 공모전 특상, 신미술대전 입상 등을 수상했고, 일본 미야자키, 중국 등지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유혹'

현재 한국미술협회, 여성작가회, 열린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5-004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남성 헤어 기능장비 **大山프리모님네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프리모님네기발**

가발

조슬림!!

미용기능장 보상 책임자

귀여운 몸매와 인격을 높여주는 생활용 미용장치가 되었습니다.

문의: 062-225-0049, 062-225-0049

푸른호수, 푸른숲속 전원주택단지 선착순 본격분양개시

자연IN

태순서심리전원주택마을 **분양사무소 (062)653-5870**